팜파스 어린이 3

생각도둑, 시간도둑, 친구도둑, 공부도둑

스마트폰이 먹어 치운 하루

스마트폰을 슬기롭게 사용하도록
이끌어 주는 생각 동화

서영선 지음, 박연옥 그림
팜파스 펴냄 | 116쪽 | 값 10,000원 |초등 중학년

책소개

"심심하면 톡톡, 지루하면 터치!! 하루 온종일 스마트폰!!"

이 책은 어린이 스스로 슬기롭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자기 관리를 하게끔 도와주는 생각 동화책입니다.어린이 친구들이 스마트폰에 푹 빠지면서 일어나는 생활 변화를 실감나게 보여 주어, 어린이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일깨우고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깨닫게 해줍니다. 스마트폰 세상보다 자기 옆에 있는 친구, 부모님 같은 존재의 소중함을 알고, 자기 생활을 돌보며 스마트폰을 슬기롭게 사용해야 함을 깨닫게 된답니다.

독후활동 주제망

스마트폰과
내 생활의 관계 살펴보기

- 나는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할까?
- 스마트폰으로 인해 일어나는 생활의 변화 살피기
- 스마트폰을 슬기롭게 쓰는 것을 알아보기

4. 스마트폰으로 주로 하는 활동을 '스마트폰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각각 아이디어를 내어 보세요! 그리고 스마트폰 없이 하는 활동의 장점과 단점을 적어 보세요!

5. 해나와 윤아는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다투고 말아요. 윤아가 해나가 부르는 소리도 잘 듣지 않고, 서로 눈을 보고 대화도 잘하지 않았거든요. 윤아는 스마트폰에만 신경 썼어요.
혹시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윤아처럼 스마트폰만 보면서 함께하지 않은 적이 있나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적어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 《스마트폰 바로 쓰기 운동》에 도전해봅시다!

"그렇구나. 선생님은 스마트폰을 쓰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어.
자주 만지작거리고, 뭐 더 재미있는 소식이 없나 찾게 되고.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는
스마트폰에서 유용한 도움도 많이 얻는단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알려 주지.
하지만 그만큼 스마트폰 때문에 곤란한 일도 늘어났어. 스팸 서비스도 많아졌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할 때도 많아졌어. 뜬소문과 악담이 떠돌아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었단다."
선생님의 진지한 말씀에 반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나 윤아와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이었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악성 소문으로 고생을 톡톡히 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은 정말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은 것 같아. 하지만 그런 건 스마트폰을 쓰는 당사자인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스마트폰은
좋은 물건도, 나쁜 물건도 될 수 있거든."

윤아네 반에서는 '스마트폰 바로 쓰기' 운동을 벌입니다. 여러분도 '스마트폰을 많이 쓸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을 바로잡는 운동'에 대해서 도전해 보세요.
어떤 운동이고, 왜 그 운동을 하면 좋은지 이유를 적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혜은 양. 촌티 공주 사진이 올라오고 나서 가상 세계 속 친구들의 행동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무척 많이 놀랐을 텐데, 이처럼 스마트폰 속 가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실제의 진실이 다를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혜은의 인터뷰 대답:

● 스마트폰은 내 하루를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까?

1. 윤아는 아빠에게 스마트폰을 선물을 받고 나서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답니다.
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윤아가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일어난 변화를 적어 보세요.

2. 우리는 생활에서 스마트폰으로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주로 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적어보아요.

3. 스마트폰을 하면서 '정말 오래했다'고 생각나는 경험이 있다면, 적어 보세요.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나요?

책을 읽으면서 질문해보고 다음을 적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등장인물 이야기

윤아

해나

혜은

다음은《스마트폰이 먹어치운 하루》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입니다.
책 속 등장인물을 인터뷰해보려고 해요. 등장인물의 성격과 특징을 살려서 답변 해보세요.

"윤아 양. 반에서 혼자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윤아의 인터뷰 대답:

"그런데 윤아양.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윤아의 하루가 엄청나게 바뀌었잖아요? 스마트폰을 하느라 매일 늦게 자서 수업도 못 듣고, 친구 말도 듣지 않고 스마트폰을 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강아지 쁘띠도 잃어버리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런 일을 겪으니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윤아의 인터뷰 대답:

"해나 양, 최신 스마트폰만 쓰고, 종종 스마트폰만 보면서 길을 걷는다면서요?
만일 스마트폰 없이 일주일을 지낸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해나의 인터뷰 대답:

책 읽기전에 해보세요!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의 앞표지와 차례를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해보세요.

1. 앞표지의 그림은 어떤 느낌인가요? 또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2. 《스마트폰이 먹어치운 하루》 라는 책의 제목을 보았을 때 떠오르는 나의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험인가요? 그때의 감정을 적어 보세요.

3. 이 책의 차례를 나란히 써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됩니다. 이 차례를 살펴볼 때,
이 책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어떻게 전개가 이루어질까요?
줄거리를 예상해 간단하게 적어 보아요.

우리는 대화 대신 터치를 한다!
치, 스마트폰 말고 내 눈을 보고 이야기하라구!
꼬마 악마 윤우
스마트폰 때문에 쁘띠를 잃어버리다!!
생각지도 못한 '촌티 공주' 사건!!
우리 학교 똥녀 4종 세트
살얼음이 풀리고, 아픈 만큼 자란다!
눈을 보고 말해요!
똑똑한 스마트폰으로 변신해라!